

화순서 유채 꽃길 걷고, 음악분수도 보고

화순천변 나드리교~별고천 2.1ha 규모... 주 4회 공연도

화순군은 봄을 맞아 주민들이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화순 천변 나드리교 인근과 별고천에 2.1ha 규모의 유채 꽃길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화순천변 꽃길의 유채꽃은 2월에 종자 파종을 시작해 잡초 제거, 배수 관리 등 세심한 관리를 거친 후 5월부터 개화를 시작했다.

또한 별고천 꽃길은 유채와 더불어 꽃창포, 붓꽃, 수련을 식재해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화순 꽃길 음악분수는 꽃길과 더불어 기존에 식재된 가우라, 붓들레아 등 다년생 꽃을 통한 계절별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화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순 음악분수 공연은 주 4일(수·금·토·일) 오후 8시에, 토요일은 오후 9시에 한 회 추가 운영하며 회당 20~25분 공연을 진행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맞춰 아름다운 유채 꽃길을 준비하



화순군은 화순천변 나드리교 인근과 별고천에 2.1ha 규모의 유채 꽃길을 조성했다.

화순군 제공

였기에 온 가족이 함께 화순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장성군, 29일까지 군청 누리집서

장성군이 오는 29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장성군 누리집 또는 군청,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단위를 기준으로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 개별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청렴하게 살어리랏다' 화순군, 유튜브 영상 제작

화순군은 지난 3일 제3기 혁신 주니어보드에서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유튜브 영상 '청렴하게 살어리랏다'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청렴영상은 제3기 혁신 주니어보드 회원들이 기획하고 기획감사실과 홍보소통담당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화순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영상은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 읍주운전, 갑질 등 청렴 위반행위를 사극의 재판 장면으로 패러디하여 만들었으며, 화순군 공식 유튜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혁신24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화순군의 혁신 주체인 제3기 주니어보드는 7급 이하와 1980년생 이후 출생 직원 24명으로 올해 새롭게 구성됐으며, 조직 구성원 간의 교류 강화와 함께 변화하는 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

나주시, 정부합동평가 도내 6위 정성지표 1위...1억1500만원 확보

나주시는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며 재정성과금 1억 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정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나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도 8위에서 2계단 상승한 도내 종합 6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정량지표 75개, 정성지표 16개 등 총 91개 지표에 대한 점검 결과 정량지표 90.6%를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개 정성지표의 경우 7개 지표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개정 이래 최초로 정성지표 종합 1위(공동)를 차지하는 결경사를 맞았다.

나주=조대봉 기자

담양군 고서면 적십자봉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세탁봉사

담양군 고서면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일 고서면예회관 광장에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적십자봉사회는 고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목은 이불 50채를 수거해 광주·전남 적십자봉사 세탁 차량에서 세탁과 건조 처리 후 각 가정에 세탁물을 전달했다.

정태남 고서면 적십자봉사회 회장은 "겨우내 묵혀왔던 무거운 이불 빨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세탁 봉사를 진행했다"며 "깨끗한 이불로 인해 작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번 봉사에 함께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고근석 고서면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에 몸을 아끼지 않는 고서면 적십자봉사회 회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행정에서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농번기 농업현장 밀착행정 장성군, 농기계 임대 등

장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6월까지 '농업현장 밀착형 농업기술 지원'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기존 농업인 상담소를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에 배치해 농기계 임대와 농업인 영농 상담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다. 전문지도사를 추가 배치해 기술 지도와 농업현장 애로 사항 해결도 지원한다.

중점지도 내용은 △벼 종자소독 및 모내기 안내 △채소, 과수 등 원예작물 병해충 진단 및 관리 기술 △기타 영농 애로사항 △농작업 안전관리 등이다.

동화·삼서·삼계면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061-390-7190)를, 북일·북이·북하면은 북부분소(061-390-7199)를 이용하면 된다. 이외의 읍면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본소(061-390-8427)가 지원을 맡는다.

박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바쁜 농사철을 맞이해 농업 현장에 보다 가까운 곳에서 품목별 영농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담양군 고서면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일 고서면예회관 광장에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봉사를 진행했다.

담양군 제공

나주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첫 삽'

총사업비 422억원... 내년 말 완공 유물전시실·수장고·체험시설 조성 영산강 등 주변 연계 관광활성화

외세 침략에 맞서 구국에 앞장선 호남 의병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산면 건립부지 현장에서 전남도 주관으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착공식이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김대중 도교육감, 이상만 시의회의장과 지역도·시의원, 김수홍 아주건설 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창 의사 김전일 의병장의 후손인 연양김씨대중회 김남전 명예회장, 광복회 송인정 전남지부장, 고속 광주지부장, 최영갑 성군관유도회 총본부회장, 광영경 (사)대한민국의병기념사업 총연합회 전남지부장, 김갑제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의병 관련 단체장, 문중 후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은 민선 7기 김영록 지사 취임 이후 2019년 발굴한 전남도 역점사업이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사와 더불어 임진왜란 전후, 한말 의병 투쟁에 나선 의병들의 충혼을 기리는 공간을 조성해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돼왔다.

나주시는 지난 2020년 7월 전남도에서 공모한 박물관 사업부지 1순위로 확정된



지난 2일 나주시 공산면 건립부지 현장에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착공식이 열렸다.

나주시 제공

이후 2021년 3월 남도의병역사공원 추진 지원단 발족과 더불어 의병박물관건립지원TF(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왔다. 아울러 읍·면·동 순회 주민 설명회, 현장 간담회, 시민 및 전문가 현장토론회 등 박물관 건립 절차와 당위성, 의미 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다.

박물관은 총사업비 422억원(군특40%·도비30%·시비30%)을 투입, 대지 2만 2396㎡, 연면적 6993㎡의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오는 2025년 말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박물관 내부엔 의병 관련 유물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교육·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선 최초 의병 활동이 발발한 을묘왜변(1555년)을 시작으로 임진왜란(1592~1598), 정유재란(1597~1598) 등 조선시대 의병을 거쳐 을미사변(1895), 을사조약(1905), 정미조약(1907) 등에 맞선 근대기 항일의병 선열들의 활동 기록과 유물을 토대로 숭고한 정신을 기릴 방침이다.

현재까지 의병 유물 2943점을 수집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의병 유물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는 박물관 건립을 통해 호남에서 가장 많은 구국 의병을 배출한 의향(義鄕)을 적극 알리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천혜 경관을 갖춘 영산강과 주변 연계사업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유치에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해주신 수많은 남도의병 문중 후손분들과 김영록 지사께 감사드립니다"며 "박물관이 의병 선조들의 충혼 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공간이자 후손들의 교육의 공간, 자연과 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전남관광 1억명 시대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물관 착공과 더불어 2단계 사업부지 개발에 따른 남도의병역사공원을 조성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